

연이은 '물 폭탄'... 심각한 농작물 피해 우려

병해충에 먹히고 습해에 썩어간다

연일 쏟아지고 있는 '물 폭탄'으로 전남지역 농경지 침수와 과수 및 밭작물 피해 등이 늘면서 농가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특히 장맛비가 오는 23일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작물 침수에 따른 병충해 피해와 한창 성장기를 맞고 있는 벼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 저조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우려 등 '물 폭탄'의 또 다른 피해가 예고되고 있다.

◇전남지역 곳곳 농경지 침수·유실=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8일 사이 전남지역에 최고 200mm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8천837ha가 침수되고, 113ha가 유실 또는 매몰됐다. 이어 일주일 뒤인 15일~16일 사이 또다시 전남지역에 200~300mm의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농경지 4천261ha가 물에 잠기고 16.23ha가 빗물에 쓸려 사라졌다.

전남지역 전체 농지면적의 5% 가까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7일~8일 내린 폭우는 화순과 나주, 신안 등 전남 중·서부권에 집중됐고, 15일~16일 내린 비는 광양과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수확량 감소 등 또 다른 피해 우려=침수 피해 농가는 대부분 담양 또는 며칠 사이 '물 빠기' 작업을 하는 등 응급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아직 피해복구에 업무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물 폭탄'을 거세게 퍼부으면서 나주와 화순, 신안 등 일부 지역은 복구할 틈도 없이 또다시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오는 23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크지만, 침수에 따른 성장기 벼의 생육과 병해충 발생 증



집중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조량 부족 생육 더뎠 수확량 급감 상추·오이값 등 쾅쾅... 서민도 괴로워

가가 우려돼 농가의 후속 피해가 예상된다.

침수된 논은 경우 물빠기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벼 기공(송무명)이 막혀 고사할 우려가 크고, 잎 도열병과 흰 잎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 자칫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추와 참깨, 노지 수박 등 밭작물의 경우는 습해가 우려되고 있고, 7

월 일조 시간이 작년에 비해 63%에 불과해 밭작물 및 벼의 생육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가격 상승에 서민도 괴로워='물 폭탄'이 전국을 휩쓸면서 상추와 오이, 무, 시금치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

해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대부분의 품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있다. 상추와 오이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씩 급등했다.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이 10kg 한 상자(특등급)의 가격은 1만4천160원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14.5%가 올랐다. 상추도 4kg 한 상자에 1만6천239원으로 전 주에 비해 21.3% 올랐고, 시금치(4kg) 가격 또한 32.4%가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홍정일기자 cki@kwangju.co.kr

차동민 대검차장 조기 발탁 왜

지도부 업무 공백 장기화 막고 조직 동요 잠재우기 고심 흔적

법무부가 19일 후임 검찰총장과 의 협의절차 없이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한 것은 지도부 부재 사태에 따른 검찰의 업무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금은 그런 원칙에만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신임 검찰총장을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고 뒤이어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순리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은 물론 고검장급 9석이 모두 비어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사실 검찰은 지난달 초 임명된 검찰총장의 퇴임 후 총장 자리가 공석인 채로 이미 한달반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한 지난 14일 그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문성우 전 대검 차장까지 퇴임하면서 지휘부의 관단이 필요한 특수수사와 공안사건의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천 전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로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 낙마함에 따라 새 총장 내정에까지 꽤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대검 차장의 조기 기용에 불을 지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자의 사퇴로 한 차례 '빠야쁜' 경험을 한 청와대로서는 인선 및 검증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 임명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어도 한달 안팎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천 후보자의 사퇴 등 돌발 변수가 잇따르면서 검찰 내부가 심하게 동요하고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비정상적 인사'의 불가피성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검찰 조직의 쇄신을 위한 카드였던 천 후보자의 내정이 낙마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내몰린 형국이 됐다.

차 신임 대검차장이 "검찰 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같은 배경에서 대검 차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주요 보직을 미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차 신임 차장이 20일부터 업무에 착수하면 일단 검찰로서는 발등의 '급한 불'은 끄는 셈이지만 검찰총장 또는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 간부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농식품 재정을 상반기 60% 집행

10조9천억... 일자리 12만개 제공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10조9천억 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농식품 분야 재정 총액인 약 18조 원 가운데 60%를 집행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일자리 창출, 금융시장 안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의 집행률은 69.0%로 더 높았다.

농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농어촌 실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12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제공된 일자리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 1만8천 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6천 개, 농수산물 유통 개선 3천 개, 수자원 조성 3천 개, 농식품 수출 확대 2천 개, 산림 분야 6만6천 개, 농촌 진흥 분야 8천 개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일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신청 20개국 넘어... 100개국 유치 순조

세박이 목표로 하는 100개국 및 5개 국제기구 참가 확보의 전망이 매우 밝아졌다고 밝혔다.

김일수 조직위 대외협력본부장은 "초청장 발송 후 반년 만에 20개국의 참가결정을 확보한 것은 여수세박 주제의 시의성과 동아시아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직위는 주요 선진국들과 해양 및 연안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들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 유치사절단을 수시로 파견하

고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와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참가교섭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참가의사를 통보한 국가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파나마, 터키, 리비아, 가이아나, 예멘, 이집트, 태국,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스위스, 엘살바도르, 세이셸, 코트디부아르, 바누아투, 오만, UAE, 독일 등 20곳이다.

한편, 여수세박은 2012년 5월12일부터 3개월간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 신항 일대에서 개최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의사를 통보해 온 국가가 20개국을 넘어서는 등 박람회 참가국 유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박) 조직위원회는 최근 독일이 참가를 공식통보해 음에 따라 지난 1월 박람회 참가유치 교섭이 개시된 이래 20번째의 참가국이 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직위는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BIE(세계박람회기구) 주요 회원국은 물론 UN 등 주요국제기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참가입장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여수

쥬조이 여행사
234-3222

300여종 특가 비싸서 못만들
-새로운 상품, 특가, 특가-
5월 629,000

무안~연길 (7박)
백두산
2박4일 499,000
백두산(북파+스키) 4박 159,000

제주 2박3일 패키지 여행
128,000
188,000
279,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쥬슈 온천여행
4박 369,000 ~
4박 459,000 ~

대마도속리산으로 떠나는 대마도 여행
3박 399,000 ~

남양주 북수영장 온천여행
4박 549,000 ~